

청렴. 같은 이름 다른 얼굴

추석이라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친척들의 말소리에 부모님의 거실엔 반가움으로 가득 찼다. 한가위만큼이나 한가득 식사를 끝내고 차 한 잔을 곁들여 담소를 나누던 중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다.

“이 커피 한번 마시 봐라. 이번에 일하는 경비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건데 억수로 맛있더라. 오늘 같이 먹으려고 몇 개 가져왔다 아이가”

소일거리로 경비원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커피를 권하셨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니 우얌라고 그걸 가지고 왔노. 그런 거 함부로 가져오는 거 아이데이. 손님들 드시라고 갖다 놓은걸 니 좋자고 들고 오면 안 되지. 거기 사람들 알면 큰일 난다야. 그거 남은 거 고대로 내일 갖다 놓거래이.”

그 말을 들은 나는 문득 휴대폰으로 읽고 있던 청렴 수기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순간 글로만 읽고 있던 사연들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왈가왈부하고 있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대화 사이에 물음을 던져보았다.

“할머니. 청렴이 뭔지 알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청렴? 그거 뭐 깨끗하고 안 부끄럽게 살자는 거 아이가. 남한테 떳떳하기만 하면 되는기라. 내 팔십이 넘어도 어데 빌리고 안 갚거나 공짜로 받아먹은 거 없다. 니도 어데 가서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는기라.”

공직자이거나 군인, 아르바이트생 혹은 어업을 하시는 부모님. 청렴 사연 주인공들의 배경에는 직업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청렴은 맑고 깨끗한 의미의

‘청렴’ 그 단어 그 자체였다. 많은 사연들이 그리하듯,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자세. 그것이 할머니의 청렴이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을 이으셨다.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에 부임해서 첫 담임 맡았을 때 촌지 때문에 속 엄청 썩었었다. 그때는 촌지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

아버지는 첫 담임교사를 맡고 맞이한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때문에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 마음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았다.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의 사연처럼 당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촌지 문화’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간 그 선생님처럼, 아버지에게 청렴은 교육자의 양심이자 학생들로부터의 존경이었다.

‘전하지 못한 신도증’에서 매표소 직원인 사연의 주인공은 신도증이라는 이름의 ‘청렴’을 결국 어머니께 전해드리지 못하였다. 청렴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대를 지내온 부모님들에겐 ‘청렴’의 의미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 2년 전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대기업 임원직을 맡고 있는 어머니 지인의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나를 보며 입을 여셨다.

“그때 내가 니한테 OO중공업 홍 상무님 좀 만나 보라카이 그렇게 안 만나더만 지금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베. 안 그래도 그때 소개받아서 어중간하게 눈치 보며 일했으면 어쨌겠노 싶다. 지금 니가 스스로 잘해나가고 있으니까 엄마는 참 자랑스럽다야. 그때 미안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청렴!’에서의 주인공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아들에게 내민 봉투를 부끄러워 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께서도 잠시 그런 마음에 말끝을 흐리신 게 아닌가 싶다.

가만히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9살배기 조카는 한동안 형수님의 휴대폰을 훑어져라 보더니 이윽고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청렴! 청렴 그거 119 아저씨들이 사람들에게 돈도 안 받고 위험할 때 공짜로 도와주는 거 예요. 멋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조카 혼자서 휴대폰 동영상 어플을 통해 청렴을 검색해보고는 청렴 UCC 작품 중 하나를 시청했던 모양이었다. 조카가 보았던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 사연의 주인공인 소방공무원처럼, 공익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이들의 눈에는 힘들 때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슈퍼맨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청렴이라는 주제로 한동안 대화 꽃을 피웠다. 그날 ‘청렴’은 할머니에게는 ‘똥똥함’을, 아버지에게는 ‘양심’을, 어머니에게는 ‘부끄러움’을 조카에게는 ‘멋짐’이라는 제각기 다른 색깔로 나에게 비춰졌다.

청렴 사연의 주인공들은 모두 각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수기에 담았다. 언뜻 보면 다른 장르인 듯이 보이나, 하나의 연속극과도 같이 ‘청렴 엔딩’이라는 감동으로 수렴된다.

청렴은 가까이 있다. 각자의 사연 속에 각자의 얼굴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다. 우리는 서로가 감춰놓은 청렴이라는 얼굴을 자신 있게 들이밀고 마주 봐야 할 것이다. 추석 때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처럼, 우리들도 청렴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국민’ 이길 소망한다.